북미정상회담 바라본 광주 새터민·실향민

## "남북 교류 문도 활짝 열리길"

#### 새터민 남유정씨

북 가족과 전화통화라도 했으면

"이번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 류의 문도 활짝 열려 북에 있는 가족을 하루 빨리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."

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12일 광주시 북 구 두암동에서 만난 새터민단체 한라•백두 평화통일연대 남유정(여·42) 대표는 "북 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, 정 전 협정 체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"며 "이 번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열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남과 북을 자 유롭게 오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"고 강

함경북도가 고향인 남 대표는 지난 2005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건너왔다. 1년 후 꼭 서른살이 되던 해 남한 출신 남 편을 만나 결혼했고 현재 초등생 3남매를 키우고 있다. 지난 2016년부터는 새터민 단체 공동대표직을 맡아 북한 실상을 알리 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다.

남 대표는 "지난 2014년 북한에 남은 아 버지가 '딸이 보고 싶다'며 눈을 감지 못하



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"며 "나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" 고 눈시울을 붉혔다.

남씨는 또 "남한으로 온 지 10여년이 지 났지만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체감한다"며 남북 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.

남 대표는 "외래어 등 모르는 단어가 많

아 그때 그때 배우고 있다"며 "10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도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데, 70년을 넘게 떨어져 산 남・북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겠나. 서로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통일에 앞서 문화·경제적 민

간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"고 조언했다.

남 대표는 이번 북미 회담을 계기로 남 북이산가족 상봉과 새터민을 포함한 남북 주민간 자유로운 교류 등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. 남 대표의 꿈도 소박하다. 북에 있는 남동생의 목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

남 대표는 "새터민은 여전히 이산가족 상봉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"며 "가족과 전화통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"고 호소했다.

남 대표는 정전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보 였다. 그는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 결될 것으로 봤다. 이날은 지난 1953년 휴 전협정이 체결된 날이기 때문이다.

그는 "남과 북이 갈라진 날에 정전협정 이 맺어지고, 휴전선 철조망 철거로 이어 지길 바란다"며 "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외갓집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롭 게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/김용희 기자 kimyh@kwangju.co.kr

## '고향 땅 밟을 그날 기다려요"

#### 실향민 김성연씨

남북 주민 왕래할 수 있었으면

"북미 정상이 서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죽기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흥분됩니다."

김성연(85·광주시 북구 중흥동) 함경 남도 도민회 광주지부 회장은 12일 자택 에서 TV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지켜본 뒤 "북한에 있는 동생들을 만날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"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

김 회장은 "방금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, (북미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)도저히 믿기 지 않는다"면서 "곧바로 통일은 어렵겠지 만 정전협정만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함경남도 정평군 출신인 김 회장은 9남 매 중 첫째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 1950년 친구들과 여행 도중 한국에

이후 68년 동안 고향땅을 가지 못한 김 씨는 그동안 함경남도에 있는 동생들을 만



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매 번 고배를 마셔야 했다.

만성 천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그는 지 난달엔 천식과 함께 감기 증상이 겹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.

한동안 병원 입원실 신세까지 졌던 김씨 는 최근 들어 건강상태가 수시로 나빠지면 서 동생들을 만날 마음이 더 조급해 지고

김씨는 "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설업

체를 통해 중국에서 동생들과 만나 고향 과 가족 소식을 일부 듣긴 했지만, 이후 연 락이 끊겼다"면서 "이번이 북에 살아있을 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듯 싶어 마음이 급해진다"며 눈시울을 붉혔

김씨는 "꿈에서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함경남도 정평군 광덕면 양죽리 고향에 대 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"며 "고향과 가 족이 생각날 때면 인공위성 지도인 '구글 어스'를 통해 고향을 내려다 보는 방법으 로 향수를 달래곤 한다"고 말했다.

그는 이어 "(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) 곧 바로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남・북 주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"고 덧붙였다.

김씨는 "한때 100여명에 이르던 광주 거 주 함경남도 출신 실향민 1세대가 이제는 20명도 채 안 남았다"며 "그나마 살아있는 실향민도 대부분 80~90대 고령으로 최근 10여 년간 경직된 남북관계 속에 북에 있 는 가족과의 만남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지 만,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이 크다"며 활짝 웃었다.

/김한영 기자 young@kwangju.co.kr

### 내리막길 브레이크 풀린 학원차량 공무원이 온몸 던져 대형사고 막았다

#### 초등생 5~6명 탑승 아찔 본인은 전치 12주 중상

진도군청의 한 공무원이 경사로에서 돌 진하듯 내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온몸으 로 차량을 막아 5~6명의 아이를 구한 사 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

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진도군 진 도읍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.

내리막길인 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하더니 왕복 2차로 도로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내려 갔다. 차 안에는 학원 수업을 마친 초등학 생 5~6명이 타고 있었으며, 아이들과 주 위에 있던 학부모들은 깜짝 놀라 '도와주 세요. 살려 달라'는 비명을 질렀다.

마침 퇴근길에 이곳을 지나가던 진도군 청 황창연(50·사진) 주무관은 놀란 학부 모의 모습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다.

황씨는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가던 차 문 을 연 뒤 한발로 버티면서 중립으로 돼 있 는 기어를 주차로 전환하고 사이드브레이 크를 잡아당기는 등 온몸으로 막았다.



가속이 붙은 SUV 승용차에 10여m를 끌려가던 황씨는 이 과정에서 그대로 길 바닥으로 튕겨 나가 허리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 을 입었다. 돌진하듯

내려 오던 차량은 도로 옆 상가 앞에서 가 까스로 멈춰 섰다.

이 길은 117가구 400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으로 퇴근 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. 아이 부모들과 주민들은 놀 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황씨에게 '생명의 은 인'이라며 고마워했다.

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배웅하 면서 기어와 제동장치를 허술하게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.

황씨의 선행은 병원 입원 과정에서 주위 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.

목포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황씨 는 "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사해 다행"이라 고 활짝 웃었다.

/진도=박현영 기자 hypark@



북미정상회담에 쏠린 눈 12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시청하고 있다. 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#### 성폭력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 출석 "그렇게 살지 않았다"

여배우 등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후 잠적했던 영화감독 김기덕(58)이 언론 앞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허 위라고 적극 반박했다.

김 감독은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(홍종희 부장검사) 고소인 조 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"저는 그렇게 살

아오지 않았다.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"고 주장했다.

김 감독은 "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저 나 름대로는 인격을 갖고 존중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고 생각한다"며 "어떤 부 분은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

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지난해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'혐의 없음' 처분이 난 것을 두고 최근 A씨를 무 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역고소했다. 앞 서 A씨는 2013년 개봉작 '뫼비우스'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 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다.

#### 유명 래퍼 씨잼 마약 '쇠고랑'



○…인기 서바이벌 프 생 나 팔 로그램인 '쇼미더머니' 출신 유명 래퍼 씨잼(본 명 류성민·25)이 마약 투약 혐의로 쇠

○ "수원지검강력부(이진호부장검 사)에 따르면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모 (25)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 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 당의 대마초 112 g을 구매했으며,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(본명 신동 열·37),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.5 g을 코로 흡입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

○…씨잼은 검찰에서 "음악 창작활동 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 을 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 데, 검찰은 씨잼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 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추적하는 한 편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 예인 지망생은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 으로 사건을 이송.

/연합뉴스

# 大山 프리모 남녀 개발

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



특수가발 별매 (원터치)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(일요일 정상 영업)

130만원 59만원

본점: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

062 673 5858(모발모발)

##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

(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)

농림축산식품부

**ඊ**농협

(🔷) 에너지관리공단

##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



▶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▶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(25년동안 년평균 6,000만원)

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(3,000평 이상)

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

해가온에너지

(주)해가온 개발

전국대표 1588-1543 이길영 010-3645-1479

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